

10-02(통권 제2호)

2010.03.17



동북아 REVIEW

일본의 경제 긴급대책과 시사점



□ 일본의 경제 긴급대책과 시사점

○ (개요)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 경제의 재건과 미래 성장의 기반 확충을 위한 긴급 경제 운용 방안¹⁾을 발표

- 하토야마(鳩山) 정권 발족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경제 대책의 기본 방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
-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고는 있지만 고용 환경 악화와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을 반영
-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향후 약 24.4조엔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

○ (주요 내용) 경제부문 대책은 크게 고용, 환경, 경기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긴급 대책과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으로 구성

< 일본의 2010년도 경제부문 주요 정책 내용 >

3대 역점 부문	긴급 대책	성장 전략
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- 신규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강화 - 긴급 일자리 확대 -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취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 및 생활 보장 시스템의 확립 ·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- 중장기 '고용 전략'의 본격적인 추진 · 일과 생활의 조화, 노동 조건 개선
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전 에코포인트 제도 개선 -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 연장 - 주택에 대한 에코포인트 제도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 가속 - 교통·산업 지역의 저탄소화 추진 - 에너지 절약 및 환경 기준의 강화 - 희귀 금속 등 자원 확보 지원
경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기에 대응하여 긴급 보증제 신설 -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원활화 - 중견 및 대기업의 자금 순환 대책 - 디플레이션 진행에 따른 금리 경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금융 확충으로 건설투자 활성화 - 세제 개정을 통한 경기 부양 촉진 -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
주 : 경제 관련 3대 역점 부문 이외에도, 의료복지 등 '생활의 안심 확보', 지방 인프라 정비 등 '지방 지원', 사회 제도 정비 등 '국민 잠재력 발휘' 등의 분야에서도 긴급 대책을 마련

1) 일본 내각부가 2009년12월8일 발표한 '明日の安心と成長のための緊急経済対策'을 요약, 재구성함

① 고용 : 고용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역점

-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 청년 실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
 - 보육 서비스 확충 등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적극 지원
 -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재택 근로 등 근무 형태 다양화를 지원
-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생활보장 시스템의 확립과 노동 환경 개선을 추구
 - 여성,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 참여 촉진 및 기회 확대를 모색
 -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 조건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

② 환경 : 지구온난화 대응과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구

- 올 한해는 특히 가전의 에코포인트 제도 개선, 친환경차 보조 연장, 주택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에코포인트 신설 등으로 녹색소비 활성화를 추진
 - 가전제품의 에코포인트 제도는 당초 3월말까지였으나 12월말까지 연장
 -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초 3월말에서 9월말까지 6개월 연장
 - 올해 3월부터 주택의 친환경적인 신축, 개축에 대해서 에코포인트를 제공
-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 기술개발 지원과 환경 대응 인프라 확충
 - 향후 실용화가 예상되는 첨단 환경 기술의 조기 개발에 역점
 - 희귀 금속에 대한 탐사 및 국가 차원의 비축을 강화

③ 경기 : 주택시장 활성화 및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을 가속화

- 긴급 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뒷받침
 - 무역보험 활용 등으로 엔고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
 - 디플레이션과 엔고로 부진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실질 금리를 경감
- 주택금융 확충, 세제 개편 등으로 건설시장과 설비투자 활성화 유도
 - 금융지원기구를 통해 한시적인 금리 인하로 주택 투자의 확대를 추구
 - 세제 개혁을 통해 주택 및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증여세 감면 방안 마련

허만울 연구위원(myhur112@hri.co.kr, 02-2072-6236)